

특집 1 : 2006년 도서관계 10대 뉴스

2006년 도서관계 10대 뉴스

총평과 해설

2006년 도서관계는 의미있는 한 해를 보냈다. 한 해를 보내면서 도서관계를 뜨겁게 달군 열 가지 뉴스를 선정해 보았다.

올 한 해 도서관계에서 가장 큰 사건은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의 '세계도서관정보대회'가 우리나라 서울에서 열렸다는 것이다. 이 대회는 전세계 도서관계가 매년 세계 주요 도시를 돌아다니며 개최하는 명실상부한 세계 도서관인의 축제이자 학술과 정보교환의 마당으로, 2006년 서울대회는 역대 대회보다도 많은 5,100여명이 참석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대회를 위해 정부와 도서관계가 합심해서 수 년동안 준비한 결과이다. 이 대회를 통해 경제력에 비해 도서관 문화 수준이 세계적으로 크게 낮다는 지적을 받아온 우리나라 도서관계가 세계 도서관계에 모습을 드러냈고, 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크게 주목받게 되었다. 세계대회 개최 말고도 또 한 가지 큰 획을 그은 사건이 있었다. 그것은 「도서관법」 개정이다. 2002년부터 꾸준히 논의되어 왔고, 2005년 6월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면서 본격적으로 개정 절차가 진행되어 온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이 드디어 올 해 9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 결실을 맺은 것이다. 1994년 제정된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은 그동안 몇 차례 부분 개정이 있었지만, 이번에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서관법」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으로 분리되어 도서관은 도서관 정책 논리와 방법, 운영원칙에 따라 21세기 우리나라 지식과 문화 부문의 핵심 기반시설로 거듭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사건 이면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연 초(2월 말)에 해방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직 직접 공공도서관 정책을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공공도서관 확충과 활성화에 관한 정책과제를 보고한 자리에서 대통령께서는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지방

교부세로 전환된 것에 대해 지방교부세 배정기준의 재조정 방안을 검토할 것과 도서관 관련 예산확충과 기능 및 역할의 개선, 그리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를 실효성있게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처럼 2006년 도서관계는 세 가지 큰 사건으로 벽찬 감동과 기쁨의 한 해를 보냈다. 그러나 한 편으로 여러 과제를 확인하는 사건도 있었다. 학교도서관 부문에서는 여전히 확장 정책은 그 결실을 맺고 있지만, 그럴 수록 사서교사 부족에 대한 아쉬움은 더욱 커졌다. 작년부터 사서교사 채용이 확대되었다고 하지만 1~200명 수준으로는 1만여개에 달하는 도서관에 전담인력을 배치해야 한다는 원칙과 바람을 채우기는 턱없이 부족하다. 공공도서관 부문에서는 작은도서관 활성화 정책이 이 부문 정책에 대한 깊은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도서관을 확충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작은도서관'에 더 많은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정부도 작은도서관을 정책과제로 설정하고 활성화에 나서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이 공공도서관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었다. 민간부문에서도 작은도서관 관련 사업들이 확대되면서 앞으로도 계속 많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서 연말에 정부는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문화시설의 야간개관 시간 확대를 실시한다고 발표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은 자료실은 10시까지 일반열람실은 11시까지 개관 시간을 연장하게 되었다. 2006년과 2007년 시범사업을 통해 그 성과를 검증해 보게 될 것이지만, 과연 이번 조치가 향후 공공도서관 운영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도서관들은 앞으로 국민들의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깊은 고민과 실효적인 대안 창출, 그리고 실천 노력이 더욱 절실히 요구될 것이다. 2006년 한 해도 이같은 과제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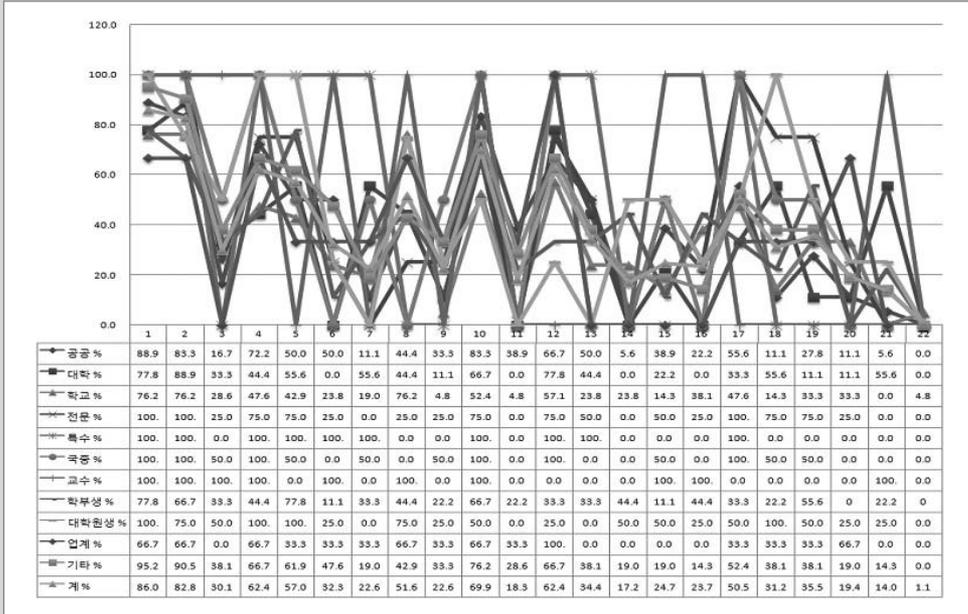
도서관계 자체적인 부문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건들이 있었다.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2005년 말 리모델링에 들어갔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이 6월 개관하였다. 이 도서관 개관으로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도서관의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서비스 확충에 새로운 국면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 도서관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한국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이 발표되었다. 도서관은 장서가 힘이고, 장서의 효율적인 이용에는 반드시 정확한 목록이 필요하고, 전국적인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가 중요했는데, 이번에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국자동화목록형식을 발표함으로써 목록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큰 진전이 기대된다. 2006년에는 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 나섬으로써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도서관 부문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도서관계는 한미 FTA와 관련해서 도서관 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도서관계 내부의 중요한 사건으로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가 의학사서제 도입을 선택했다. 사실 도서관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전문가라고 하는 사서의 양성고 배치, 실제 현장에서의 전문성 발현 등에 관련한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꾸준히 전문사서자격 제도 도입이 논의되

어 왔다. 어린이 도서관 서비스와 관련해서 어린이전문사서 양성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특별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학사서 분야에서 2006년 의학사서제를 실시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물론 아직 이 자격이 사서자격과 같이 국가자격으로 인정되지는 않고 있지만, 앞으로 도서관계는 다양한 현장의 변화와 이용자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으로서의 전문사서 양성과 제도화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번 의학사서제도 실시가 본격적으로 사서자격제도의 전문적인 개선과 개혁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

이 밖에 10대 뉴스에는 선정되지 않았지만 선발 검토과정에서 후보로 선정되었던 사건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5.31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도서관계, 출판계, 독서계가 연합해 정책 제안을 제출했다.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방선거에 대응하는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도시 한 책읽기 운동 확산 추세가 뚜렷하게 증가했다는 사실도 적지 않은 주목을 받았다. 2003년 도입된 새로운 유형의 지역과 도서관 중심 독서운동으로 점차 사회적으로도 지지를 받고 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도서관 부문에서도 교육인적자원부가 대학도서관 활성화에 90억원을 지원키로 한 것과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가 실질적인 활동을 개시한 것이 후보 뉴스로 선정되었다. 중앙인사위원회가 국립중앙도서관 부장직 등을 개방형직위공모형으로 전환한 것도 관심을 끌었다. 공공부문 도서관의 인사 부문에서의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같이 개방형직위의 확대 소식은 나름대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문화관광부는 공공도서관-출판물류 RFID 적용 확산 사업에 나섰다. 2006년 새로 개관한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은 어르신일자리 시범사업을 실시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기도 했다. 또한 LG상남도서관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 읽어주는 도서관'을 개발하여 역시 언론과 도서관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학교도서관들에서 사용하고 있고 교육학술정보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DLS 소프트웨어가 공공기관 최초로 GS인증을 획득했다. 그리고 독서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도서전이 열려 독서진흥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도서관과 도서관인들이 여러 부문에서 상을 수상한 사례도 많았다. 이러한 상황은 도서관과 도서관인의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정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할 것이다.

2006년 도서관계 10대 뉴스는 다음의 절차를 거쳐 선정했다. 우선 협회 <도서관문화> 편집실에서 2006년 12월 초 2006년 1년 동안의 다양한 사건들을 검토해 총 21건의 후보 뉴스를 선정했다. 이를 근거로 도서관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12월 12일부터 15일까지 4일간 인터넷을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예년에 비해 다소 적은 수 93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이를 근거로 12월 18일 <도서관문화> 편집실에서 회의를 통해 모두 10개의 뉴스를 최종 10대 뉴스로 선정했다. (주) [정리: 이용훈]

참고 설문조사 결과



1.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
2.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 드디어 개·제정
3. 5.31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도서관계, 출판계, 독서계가 연합해 정책 제안 제출
4.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께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책 보고
5. 정부와 민간영역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확대
6. 한 도시 한 책임기 운동 확산 추세 뚜렷
7. 교육인적자원부, 대학도서관 활성화에 90억 지원키로
8.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성과와 위기 속에서 지속
9. 문화관광부, 공공도서관-출판물류 RFID 적용 확산 사업 추진
10.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
11.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 어르신일자리 시범사업 실시
12.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 발간
13. 도서관계, 한미 FTA와 관련한 의견 천명
14. 다채로운 도서관 열려
15. 중앙인사위원회, 국립중앙도서관 부장직 등을 개방형직위공모형으로 공모
16. 도서관과 도서관인, 여러 부문에서 상을 받다
17. 문화관광부, 연말부터 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야간개관 시간 확대 실시
18. 한국학도서관협의회, 의학사서자격제 시행
19. LG상남도서관,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 읽어주는 도서관' 개관
20. DLS 소프트웨어, 공공기관 최초 GS인증 획득
21. 대학도서관발전위원회 활동 개시
22. 기타

2006년 한국 도서관계 10대 뉴스 (무순)

- ▣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
- ▣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 드디어 개·제정
- ▣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께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책 보고
- ▣ 정부와 민간영역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확대
- ▣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성공과 위기 속에서 지속
- ▣ 문화관광부, 연말부터 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야간개관 시간 확대 실시
- ▣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의학사서자격제 시행
-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
-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 발간
- ▣ 도서관계, 한미 FTA와 관련한 의견 천명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개최

세계 도서관 및 정보관련 최대행사인 '세계도서관정보대회(WLIC)'가 8월 20일부터 24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서울대회는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알렉스 번 회장과 클라우디아 룩스 차기회장을 비롯해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5,100여명의 각국 국가 대표도서관장, 대학도서관장, 공공도서관장, 문헌정보학자, 사서와 IT관련 전문가 등이 참석하였다. WLIC는 "도서관 : 지식정보사회의 역동적 엔진"을 주제로 8개 부회와 47개 분과 회의 및 20여개의 다양한 학술발표회가 개최되었으며 그 외에도 전시회, 문화관광부장관 만찬, 문화의 밤, 서울특별시장 만찬 등의 문화행사 및 도서관 방문 등 풍성한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1999년 방콕대회에서 올해 서울대회 개최가 결정된 이후, 한국도서관협회와 도서관계는 착실히 대회를 준비해 왔다. 2005년 본격적인 대회 준비를 위해 신기남 의원을 조직위원장으로 하는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회를 재단법인으로 설립하기도 했다. 대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서 대통령 영부인 권양숙 여사께서 명예위원장으로 성공적인 대회 개최에 많은 도움을 주었다.

도서관법과 독서문화진흥법, 드디어 개·제정

2002년 초 한국도서관협회가 도서관법 개정을 논의하기 시작한 이후 꾸준히 논의되어 오던 도서관법 개정노력으로 지난 해(2005년) 6월 1일 이미경 의원등 47명이 발의한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10월 4일 정부가 법률로 공포함으로써 그 결실을 맺었다.

도서관법 개정안은 이미경 의원안 이외에도 박형준, 정병국 의원안도 있었고, 현행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을 도서관법과 독서진흥법으로 분리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되면서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했다. 그 과정에서 이미경 의원안도 당초의 안에서 적지 않은 변화를 담아 이번에 개정되었다. 4월 이미경 의원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이후에도 국회내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한국도서관협회를 비롯한 9개 관련 학·협의회는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6월 20일 국회의장, 정당 대표 및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에게 각각 보내기도 했다.

이번에 개정된 「도서관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2007년 4월 5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도서관계의 숙원이었던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대통령 소속으로 설립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매 5년마다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근거로 중앙 행정기관과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 등은 매년 연차계획을 수립하여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또한 도서관 행정의 지방분권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에 지역대표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하였으며, 지방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를 두어 자율적인 도서관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그동안 특수도서관으로 구분되어 있던 장애인도서관 등과 어린이도서관과 문고를 공공도서관 범주로 포함시킴으로써 명실상부하게 공공서비스로서의 도서관서비스가 모든 국민들에게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도서관연구소와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두도록 하여 도서관의 정책연구와 도서관을 통한 지식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지원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편 도서관법에서 분리된 「독서문화진흥법」도 문화관광위원회의 대안이 11월 30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해, 2007년 4월 5일부터 발효된다.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께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책 보고

2월 27일 우리나라 도서관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께 공공도서관 정책을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날 보고회에는 정동채 문화관광부장관, 신기남 2006서울세계도서관정보대회

조직위원장, 한상완 한국도서관협회장, 김태근 국립중앙도서관장(당시) 등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은 공공도서관, 특히 작은도서관 확충 등 공공도서관에 대한 주요 현안을 보고하였다. 또한 도서관법 개정 상황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국무총리소속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가 거론되자 대통령께서 위원회를 대통령소속 위원회로 만들도록 지시하시기도 하였다. 이날의 보고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지방교부세 배정기준의 재조정 방안 검토와 도서관 관련 예산확충과 기능 및 역할의 개선,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설치를 지시하였다. 지시사항은 3월 22일 관보 제16218호에 게재되었다.

정부와 민간영역에서 작은도서관 활성화 사업 확대

2006년에 들어와 작은도서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고, 정부에서도 국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생활권 인근의 도서관 서비스 확충에 대한 정책관심이 높아지면서 작은도서관 활성화가 적극 추진되었다. 특히 대통령께 공공도서관에 대한 정책 보고 이후 국립중앙도서관에 작은도서관진흥팀이라는 전담조직이 설치되면서 작은도서관 정책이 강화되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2006년도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지자체의 작은도서관 확충사업을 지원하였다. 이같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및 범국민 운동 확산” 사례가 2006년 문화관광부 혁신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또한 서울지역 작은도서관(문고포함) 활성화 연찬회를 개최하여 국립중앙도서관의 작은도서관운영 사례 소개, 종사자의 전문성 제고 등 작은도서관과 지역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발전 등을 논의하기도 했다.

경기도도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만들기 계획을 발표하고 주민자치센터, 종합복지관 등 공공유희시설을 활용하여 중앙도서관 분관형태로 설립된다. 이들 도서관은 다른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 주민의 쉼터로 활용한다. 2006년에는 12개의 ‘동네마다 작은도서관’ 건립이 진행중에 있으며 2008년까지 총 46개로 늘릴 예정이다. 또한 작은도서관 이외에도 지역별 특징을 고려하여 특화된 전문자료를 구비한 ‘테마정보실’을 추가로 설립할 계획을 밝혔다.

한편 민간영역에서는 삼성사회봉사단과 책읽는사회문화재단, 한겨레신문사가 함께 100억원의 사업비로 ‘희망의 작은도서관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였다. ‘희망의 작은도서관 만들기’는 농어촌 초등학교의 도서관과 민간에서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화와 교육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된 지역의 어린이들이 책을 가까이서 만날 수 있도록 도서관을 꾸며주는 일을 한다.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 성공과 위기 속에서 지속

경기도 수원시는 관내 학교도서관에 자료구입비로 5억 원을 지원하였다. 수원시(지자체)가 이같이 학교도서관에 관심과 지원을 하는 것은 학교도서관이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핵심시설이며, 교수-학습도움센터로서의 역할의 장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한 때문이다. 시는 가을에 제2회 “학교도서관 축제 한마당” 행사를 수원교육청과 공동 주관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에게 학교도서관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렸다.

인천시교육청은 학교도서관 관리 등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학교도서관 지원단을 운영하고 있다. 사서 등 전문 인력이 없는 각 급 학교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5월 처음으로 학교도서관 지원단인 ‘찾아가는 SL(School Library) Helper’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도서관을 운영해본 경험이 있는 일반교사와 사서교사, 공공도서관 사서 등 총 24명으로 구성된 학교 도서관 지원단은 3인 1개조로 나눠 활동는데, 도서관이 있는 학교를 방문하여 각종 자료나 도서 확보 계획 수립, 도서 구입·비치, 자료·도서 폐기 도서관을 수업에 활용하는 방안, 자료·도서 관리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리모델링·구축 등을 지원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06년에도 전국 1,462개 초중고교에 도서관이 신설되거나 기존 시설을 개보수(리모델링)하는 등 학교도서관이 교수학습의 중심으로 탈바꿈하는데 7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내용의 ‘2006학년도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연초 발표하고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여전히 사서교사가 배치되어 있지 않아 학교도서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05년 200여명의 사서교사를 신규 임용한 이후, 2006년 말에는 106명 확충에 그쳐 사서교사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게 되었다. 사서교사가 없는 학교에서는 일반 교사들이 학과 수업과 병행해 학교도서관을 운영하고 학생들의 독서지도를 하고 있어, 방과 후 시간 등의 독서지도는 물론 도서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화관광부, 연말부터 도서관 등 문화시설의 야간개관 시간 확대 실시

문화관광부는 2004년부터 시작된 주40시간 근무제 실시 이후 증가하는 여가시간과 문화수요에 대응하고 시간부족으로 일과후 문화생활을 누리기 어려운 직장인과 학생들의 문화체험 기회를 확대할 목적으로 국·공립 문화시설의 야간개관 시간 확대를 추진하였다. 이미 2월 말 기획예산처의 업무계획에서 공공도서관 및 박물관 개방시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도 있다.

이번 계획에 따라 11월부터 국립중앙도서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16개 시·도 지역대표 공공도서관이 11월 20일부터 자료실은 22시까지 열람실은 23시까지 확대 운영되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는 야간개관 시간 확대 운영의 성과를 평가해 2007년부터 129개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9개 국립지방박물관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800여명의 새로운 사회적 일자리 창출은 물론, 가족단위 관람객이 찾고 즐길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개발도 적극 지원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일선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반대의견도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의학사서자격제 시행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가 꾸준히 검토해 온 의학사서제를 2006년 본격 실시하였다. 의학사서제는 의학도서관에 근무하는 사서들이 전문성을 갖추고 계속 교육을 통해 사서로서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의무사항은 아니고 원하는 사람에 한해 실시한다. 자격제 관리는 협의회 내 의학사서자격관리위원회가 담당한다. 의학사서자격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자격심사평가에서 60점 이상을 받으면 되는데, 평가항목의 취득점수가 60점이 안될 경우에는 평가시험에 응시해서 60점 이상일 경우 20점의 평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월 이후 실시된 제1회 의학사서 자격인증 과정에서는 총 66명이 의학사서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개관

국립중앙도서관은 기존 '학위논문관' (분관)을 리모델링해 6월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으로 새롭게 개관하였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지상 4층 지하1층에 연면적 2,435평 규모로 어린이·청소년·각종문화 행사 및 독서 활동 공간을 갖추고 있다. 개관 이후 꾸준히 도서관에서의 어린이나 청소년 서비스를 확충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모색, 추진하고 있다.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 발간

국립중앙도서관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통합서지용)을 발전시켜 KS로 제정되게 한 이후 도서관 현장에서의 활용을 돕기 위해 한국도서관협회를 통해 책자로 발간하였다. 이번에 발간된 이 책은 기존 KORMARC 기술규칙을 과감히 탈피하고 한국목록규칙 제4판을 적용하였으며, 풍부한 예시와 적용지침을 제시하여 현장에서 좀 더 편리하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 문헌정보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이를 적용하게 됨으로써 표준화된 지식정보의 축적으로 검색과 활용 및 호환이 보다 자유로워지면서 한국서지의 국제화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서관계, 한미 FTA와 관련한 의견 천명

한국도서관협회는 최근 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한미 FTA와 관련하여 협약이 체결될 경우 도서관계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한미 FTA에 대한 도서관계의 입장을 공식으로 천명하였다.

도서관계는 한미 FTA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도서관 발전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적재산권 분야에서의 도서관 관련 조항은 현행 「저작권법」이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내용의 협상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우리나라 도서관 부문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확대를 요청했다.

한 편 동대문구정보화도서관은 9월 중 ‘한-미 FTA와 도서관’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한미 FTA가 한국의 도서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현장의 관점에서 점검하기도 했다.

